

발 간 등 록 번 호

77-4640065-000001-10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보 제20호 2016





일출 - 꿈을 바라보다
한옥마을에서 바라본 기린봉의 일출
작가_김성욱 (와트만지에 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Contents

- 04_ 발간사 | 전주시의회 의장
- 05_ 축 사 | 전주시장
- 06_ 2015년 의정활동
- 08_ 결의안, 성명서, 건의안
- 12_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의원연구단체 활동
- 20_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 32_ 전주 특화거리
- 34_ 2015년 의원 의정활동
- 67_ 기고문
- 68_ 지방의회 체험교실
- 70_ 남부시장 청년물
- 72_ 전주시의회 연혁
- 73_ 제10 대 전반기 의회구성
- 74_ 제10 대 전주시의회 의원총람
- 76_ 2016년 전주시의회 회기운영계획
- 77_ 편집후기



“시민과 소통으로 지방자치 발전 기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의회 또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의 활동과 비전을 담은 <제 20호 의회보>의 발간을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의정의 생생한 활약을 담은 의회보가 올해로 스무 돌을 맞게 되어 더욱 뜻 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주시의회는 주민과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으며, 무엇보다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정체성
회복과 갈등 해소에 적극 개입하며, 정치적 동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정치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시민의 열린 소통의 장이기에, 시민 민생조례안을 공모하고
전주시의회 현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민주주의와
의정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제 10대 의회의 전성기라 할 만큼 열렬한
의정활동과 비전 구현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치가 사람 사이의 인(仁)을 실현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진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시느 모든 일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전주시의회의장 박현규



“행복한 전주, 의회와 함께 펼 것”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20호를 맞이한 전주시의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위해 2015년 한 해 동안 전주시 곳곳을 누비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시대를 꽃피우고 있는 선도 의회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힘써 주셨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회 본연의 사명인 견제와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 균형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까레이스키인에게 한복 보내기 운동, 급여 끝전 모으기 운동 등으로 사회에 따뜻함을 전파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며, 호남권 KTX 역사 이전 촉구,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요구 등 국정현안과 시정현안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주시는 ‘따뜻하면서도 담대한 변화’를 기치로 삼고, ‘사람 우선, 인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사람, 생태, 문화’라는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향해 가슴 뛰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을 맞이하는 전주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확립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긍지가 담긴 ‘전주정신’을 바탕으로, 가장 전주다운 모습을 간직하며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도시정체성을 갖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땀의 결실인 제20호 전주시의회보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전주시의회보를 통해 전주시민에 대한 의원님들의 사랑이 전달되어, 시민에게 더 큰 사랑받는 전주시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전주시장 김 승 수



2015년 의정활동 성과



시민의 편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 대변 시민과 소통하며 사랑받는 의회상 구현에 주력

전주시의회는 ‘66 만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화합하고 상생하는 의회, 복리증진에 혼신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2015년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34명의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 하는 한편,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활발한 의정활동

전주시의회는 2015년 동안 정례회(2회)와 임시회(8회) 등 10차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133건, 동의안 47건, 결의안 7건 등 총 213건의 의안을 다뤘다. 이 가운데 46건의 의원 발의가 있었고,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민생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현안 사업인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비롯해, 호남권 KTX 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 등 시민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이 밖에 지방자치 위기를 자초하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철회 결의안을 비롯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 결의안,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중단 촉구 결의안, GS슈퍼 입점 반대 성명서 등을 발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뜻과 힘을 모으는데 노력해 왔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감시 역할 충실

25회에 걸쳐 의원들은 전주시를 상대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았으며, 79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요구했다. 또한 행

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의를 통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 등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6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전문성 및 연구역량 강화

전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연구회, 의정포럼 함께배움, 전주비전연구회,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등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의원연찬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기법 등 전문지식 습득과 함양에 노력해오

고 있다. 이처럼 의원들은 정례모임뿐만 아니라, 토론회, 강연회, 비교견학 등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의원발의,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며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힘써오고 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구현

전주시의회는 SNS, 의회간행물, 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의정 소식을 제공하는 한편, 의회 진행상황을 실시간 생중계 및 방청 기회 제공으로 생생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데 노력했다.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체험학습을 실시, 2015년 한 해 동안 12교 535명의 학생들이 시의회에 방문했으며 청소년들에게 의원과의 질의응답, 3분 자유발언 등 직접 의회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사랑받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힘써왔다.

전주시의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의회의 주인이 바로 시민이라는 가치를 옹골게 세우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34명의 시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편에 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결의안] 정부는 지방발전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하라

전주시의회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가 1월 29일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반대하며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만일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의 지방이전은 물론 공장 신·증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기특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재정 증가로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위기를 자초하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을 결의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동반 성장과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화두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전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를 시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을 묵살하고 지역주민의 민의(民意)를 능멸하는 처사라며 분리·배치 추진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전북청과 전남청 분리·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6월 11일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익산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를 시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을 묵살하고 지역 주민의 민의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949년 이리 지방건설국으로 출발하여 전북과 전남, 그리고 제주를 담당하고 있으며,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중 전북에 남아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분리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이번 분리 재배치 용역안에 따르면 사실상 광주청 중심의 방안이라며, 용역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예산규모와 인구수가 많은 광주지역으로 전북기관이 흡수 통합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결의안]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촉구 결의안

전주시의회는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및 긴장감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였다.

시의회는 9월 18일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및 긴장감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조건 없는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물론, 상시적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5.24 조치 해제를 통해 남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최근 중국의 전례 없는 국방력 증강과 일본의 계속된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위협 받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기로 이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전주시의회는 정부가 그릇된 역사 교육을 통해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반시대적·반민주적인 국정교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가 민주주의 정신과 균형적인 역사관을 침해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0월 26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그릇된 역사교육을 통해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반시대적·반민주적인 국정교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의 국정화 정책은 1973년 박정희 정부가 국정교과서 전환 발표를 한 이래 42년 만에 부활한 유신의 잔재일뿐더러, 모든 국민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관과 이념을 가질 때까지 획일적인 역사 교육을 감행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전세계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북한, 이라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명서] GS슈퍼(SSM)는 삼익수영장 인근 입점계획을 철회하라

전주시의회는 대형유통업체의 싹쓸이식 시장잠식으로 중소형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며 입점계획 철회 성명서를 발표 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혜숙)는 서부시장 상인회에 삼익수영장 상가(구 전북은행 건물)에 입점을 준비 중인 GS슈퍼 가맹점 입점 반대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2월 3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서부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전주시청 간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세상권을 살리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GS슈퍼가 입점할 경우 인근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대형마트 진출을 함께 저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삼익수영장 일대는 서부시장과 영세상권 등이 오래도록 자리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해온 곳”이라고 전제한 뒤 “GS슈퍼가 입점하면 이 일대 상권이 초토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수질조작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전주시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파렴치한 수질 조작행위에 크나큰 충격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전주시의회가 수자원공사에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하여 전주시민의 상수원에 오·폐수를 흘려보낸 사건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4월 9일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재발방지 대책 및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말단 직원의 판단만으로 수질조작이 이루어진 일인지 의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수자원공사가 조직적으로 의도한 일이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한 일이라면 지위계통의 관계자 전체에게 책임이 있다.”며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공기업이 수질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소중한 수자원의 오염을 방치 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변명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수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해야할 새만금 지방 환경청까지 오염된 물의 방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국가경영에 있어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즉각 철회하라!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대로 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이전 약속을 지키라며 공사화 철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주시의회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0월 22일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시도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대로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법률로써 공언했음에도 지난 7월 여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공사화 법안에 주된 사무소를 전주가 아닌 서울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전북도민의 공분을 산 것도 모자라 최근 정부가 직접 공사화 추진을 확정한테 대해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그간 전북도가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기존 입법안을 정면으로 뒤집는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구현 2015년도 전주시의회 시무식 개최

전주시의회는 1월 2일 의회 5층 간담회장에서 2015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지역상권 살리자! 간담회 개최 삼익수영장 GS마트 입점반대 요청

전주시의회는 2월 3일 서부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시청 간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진출 저지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소외계층에 이웃사랑 나눔 실천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전주시의회는 매년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앞두고 관내 소외된 이웃을 찾아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해 훈훈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했다.



러시아 카레이스키인에게 한복 보내기 운동 전개 정성스럽게 마련한 한복 1,000여벌 기증

전주시의회는 지난 3월 러시아 이주 고려인인 카레이스키인에게 한복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다. 시의회는 정성스럽게 마련한 1,000여벌의 한복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영사관 및 교민을 통해 우리 동포들에게 전달했다.



세월호 1주기 합동 분향 사고 없는 행복한 나라 다짐

전주시의회는 4월 16일 전주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1주기 추모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에 나섰다.



전주시청 직장경기부 체육인과의 대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혜숙)은 4월 28일 시의회 5층 간담회장에서 전주시청 직장경기부 체육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체육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무더위 속 농촌 일손 돕기 나서 삼천동 오디 재배 농가에서 오디 수확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혜숙) 의원들은 6월 23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천동 오디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아동 친화도시, 서울 성북구청 방문 전주시 사업추진 도입 여부 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현덕)은 6월 29일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시행중인 성북구청과 인증기관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방문했다.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지원 앞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신축부지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강동화)는 지난 9월 8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신축부지와 서부시장 상가 전용 주차장 부지 등을 찾아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전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을 맞아 전주 중앙 시장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 메르스 여파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등을 구입했다.



2017 U-20 월드컵 개최 도시 선정 축하 덕진구청과 유치 성공 기념 친선경기 열어

전주시의회는 10월 2일 전주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2017 U-20 월드컵에 전주가 당당히 개최도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친선 축구경기를 개최했다.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여가 시설 확충 노력 에코시티 조성사업 현장 점검 활동 전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철)은 10월 14일 옛 35사단 부지 일대에 주거특화 생태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에코시티 사업현장을 찾아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전북 선수단 격려 강원도 현지에서 열띤 응원에 나서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16~22일 7일간 강원도에서 개최된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을 방문하여 격려했다.



전주시의회 2015 의원 연찬회 개최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전주시의회는 11월 12~13일 이틀간 부안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2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기간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2015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일본 가나자와시의회와 지속적인 우호협력 교류 전통문화 교류와 노인 복지 문제 관심 갖기로

전주시의회는 일본 가나자와시의회와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의회 정보 교류 및 지방의회 공동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지난 10월 22~24일 2박3일 일정으로 전주를 찾은 7명의 가나자와시의회 대표단(단장 구보 요코 부의장)은 23일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그간 교류로 양 지역 전통문화 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례연구회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생 조례 연구에 앞장서

조례연구회(회장 이미숙 의원)는 시민이 공감하는 민생 중심의 조례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 어느 해 보다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개인별·공동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매월 정례 모임을 통하여 관련 조례(안)을 비교·분석·토론하는 연구 활동을 지속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에는 지방자치

합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조례연구회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제를 추진하여 문화·경제·복지·환경 등 자치입법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숙성하여 민생중심의 제도를 입법과정에 단계적으로 담아 낼 계획이다.



입법 전문가인 최민수 교수를 초청하여 ‘조례안 입안 심사의 전략과 기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여, 이론과 실제 적용 사례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지난 7월에는 공동연구주제로 선정된 ‘한옥마을 슬로시티 제지정 입법 지원 방안’의 취지로 신안군 증도와 담양군 창평 슬로시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담아내고 있는 지원 시스템을 직접 접해 보고,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정보 및 자료를 취

이처럼 조례연구회는 17명의 의원들이 각기 관심 분야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분석하는 전문화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전주시의회에 조례입법 분야에 보다 전문화되고, 완성도가 높은 조례(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굴·제안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의회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좋은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연구 기법들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포럼 ‘함께배움’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마련

의정포럼 함께배움(회장 장태영 의원)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현안 주제 접근이 가능한 현장 중심의 기획탐방을 통해 지역 현안,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효율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원 간 상호 협력하여 연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9대 의회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제 설정 및 연구 활동을 계획하여 지난 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자전거 정책 우수기관인 순천시를 방문했다. 이날 순천시의 도심 자전거 도로 관리 및 인프라 구축 성공사례 등을 살펴보고 전주시의 실효성 있는 자전거 정책을 만들

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우수 환경 정책으로 녹색환경대상을 수상한 영동포구의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를 찾아 기피 시설을 친환경 주민친화공간으로 바꾼 사례를 둘러보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전주시의 친환경 자원화 시설 구축과 창의적인 폐기물처리 대안을 모색했다. 이처럼 의정포럼 함께배움은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주제로 선정, 타지자체들의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주비전연구회 전주시 주요 현안 중심의 연구활동 펼쳐



전주비전연구회(회장 이명연 의원)는 지역 현안을 연구하여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창립된 의원연구단체로 전주시의 주요 현안 및 지역 숙원사업과 관련된 현안 중심의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 의회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

비전연구회는 지역 현안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례 월례모임을 개최하여 연구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타 지자체 및 해외 선진사례 등을 수집하고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전주시 주요 현안에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지역미술관 성공사례' 관련 사례연구를 위해 강원도 일원 지역미술관 비교견학을 진행했다. 2013년 개관이래 지금까지 18만명이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

미술관으로 성장한 뮤지엄 SAN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지역미술관의 성공은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애정이 필수임을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회는 2014~2015년에 걸쳐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전주시 주요 난제 해결에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각종 지역 현안들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의원연구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정책 반영 노력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회장 이병하 의원)는 제10대 의회 개원과 함께 창립된 의원연구단체로 시민들의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공사례 등을 비교·분석하며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회는 매월 정례 모임을 통해 회원들 간 연구 내용을 토의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선진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비교견학, 간담회 등 다각적인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사회창안의 선진지인 서울시 은평구와 노원구를 찾아 사회적 경제 및 청소년, 환경 문제 등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여 이를 전주시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4월에는 조례 제·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각 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린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8월에는 태양광 발전시설·태양열·지열 등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 구축으로 성공적인 녹색성장 실천지역으로 손꼽히는 원주 덕암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센터를 찾아 전주시



에너지 자립정책 발굴과 실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처럼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다각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입법 및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의원 전문성 강화 위한 연찬회 열어

의회운영위원회(이병도, 서선희, 김순정, 남관우, 서난이, 소순명, 이병하, 장태영, 허승복 의원)는 전주시의회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운영과 의회 규칙에 관한 사항 등 의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각종 조례의 발의와 안건 심사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발의 조례안 8건과 결의안 3건을 처리하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20여 차례 개최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분리·배치를 강력 반대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

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심사하여 5.24조치의 해제를 통해 남과 북이 인적, 물적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미래 비전을 함께 열어가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장단의 예산집행을 매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으며 본 회의장과 상임위

원회 회의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의정 활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회의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힘써왔다. 또한 의원 연찬회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위원장 이 병 도



부위원장 서 선 희



- ❶ 2015 의원 친선 체육대회
- ❷ 2015 의원 연찬회
- ❸ U-20 월드컵 성공 기원



상임위원회 활동 · 행정위원회

시민의 편익 증진과 합리적 예산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추구



행정위원회(강동화, 오정화, 서선희, 이경신, 이도영,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의원)는 전주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도서관 등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행정집행을 감시·건제하는 역할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주시의 공공사업 입찰과 계약 체결, 시유재산의 관리와 불법 점유 재산 실태 등 회계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활동을 활발히 하여 부조리 척결에 주력하는 한편 시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위원회는 제316회 임시회부터 제325회 정례회까지 조례안 46건, 동의안 17건 등 총 6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처리했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고충 민원 등을 투명하게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주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청렴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시·건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건지도서관, 새만금 컨벤션센터, 덕진보건소, 서울 풍납학사 등 지난 회기 동안 20여회 걸친 현장점검 활동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위원장 강 동 화



부위원장 오 정 화



- ① 진주시 자원봉사센터 방문
- ② 서울 풍남학사 찾아 현장활동
- ③ 군산새만금비즈니스컨벤션센터
현상활동
- ④ 전주책마루어린이 도서관 현장활동
- ⑤ 장아인 형 국민체육센터 신축부지 방문



상임위원회 활동 • 복지환경위원회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노력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서비스 향상 앞장

복지환경위원회(김현덕, 김진옥, 박병술, 서난이, 양영환, 이명연, 이병도, 이완구 의원)는 전주시 복지환경국, 전주시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동물원 등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66만 전주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다양한 복지수요계층의 욕구 충족과 친환경적 도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난 한 해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지난 회기 동안 조례안 27건, 동의안 11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노인들의 거동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결혼이민자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이처럼 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 생계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앞장섰다.

위원회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전주 환경사업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20여회에 걸친 현장점검과 간담회 활동을 실시해 사업

진행 상황과 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또 복지환경국 등 소관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꼼꼼히 살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위원장 김 현 덕



부위원장 김 진 옥



- 1 상터빈경시절 현경활동
- 2 음반 관리단 방문
- 3 간해 한용운의 서울 성북동 유적 방문
- 4 여성인력개발센터 방문
- 5 고산 성수상 방문
- 6 조영 청수차량 차고지 방문



상임위원회 활동 • 문화경제위원회

전통 문화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역점 남부시장 야시장, 청년몰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문화경제위원회(박혜숙, 소순명,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백영규, 오평근, 이기동 의원)는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신성장산업본부, 농업기술센터, 한옥마을사업소 등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전통 문화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 정보화 사회 구현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지난 한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연간 6백만명 이상이 찾는 전주의 전통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이러한 기틀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 자원의 개발을 위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고용의 창출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형 대형마켓의 골목상권 진출 저지(GS마트 입점 반대 성명), 남부시장·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등 서민경제 안정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을 분주히 발로 뛰었으며 탄소 산업 단지 등 새로운 공단 조성



과 기업 유치, 고용 창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과 제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했다. 또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체육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기적인 체육 발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들에게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회기 동안 20여회 결친 현장 점검 활동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위원장 박혜숙



부위원장 소순명



- ❶ 선거감영복원 헌정활동
- ❷ 진주시 농기계 임대센터 공사현장 방문
- ❸ 슬로시티 한옥마을 지속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❹ 혁신저육관 방문
- ❺ 농허농민허명 유족지 답사

상임위원회 활동 • 도시건설위원회

기반 시설 확충과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등 구 도심 활성화 노력



도시건설위원회(김윤철, 송정훈, 고미희, 남관우, 박형배, 송상준, 이미숙, 이병하, 장태영 의원)는 도시디자인 담당관, 생태도시국,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며 전주시의 쾌적하고 안정된 도시건설은 물론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건설 행정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위원회는 제316회 임시회부터 제325회 정례회까지 조례안 35건, 동의안 13건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처리했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생활편

익과 기반시설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사전 차단과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 조성을 위한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 등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왔다.

위원회는 우기대비 재해위험지구,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예정지, 쑥고개길 확장사업, 송천동 에코시티 조성사업, 노송천 복원사업 등 20 여회에 걸친 현장점검과 간담회 활동을 실시해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시민들의 의견 등 수집된 정보와 자료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했다. 또 시민교통본부 등 소관부서의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위원장 김 윤 철



부위원장 송 정 훈



- ❶ 우거 대비 제해위험지구 현상점검
- ❷ 도로개설 사업현장 방문
- ❸ 선미 존 문화재성사업 예정지 현장활동
- ❹ 노송천 공영주차장 팔날로 연결사업 현상 방문
- ❺ 도시재성지원센터 건립 공사 현정 방문

특별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일자리 창출 선심성 예산 배제, 시민혈세 낭비 방지



전주시의회는 지난 6월 17일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결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심의 활동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송상준 의원, 부위원장은 허승복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집행부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에 힘써왔다. 위원회는 지

난 7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재난·안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에 중액 지원하였고, 경상적 경비, 행사·축제성 경비는 예산 편성을 지양하였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생활임금제, 재난안전관리, 탄소산업 및 산학협력사업 등 시정 핵심 사업과 폐기물 처리, 대중교통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 1조 2,833억 8,565만원에서 1,722억 7,409만원 증액된 1조 4,556억 5,974만원이 편성됐다.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위원회는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자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

송상준, 허승복, 김남규, 김진옥, 남관우, 박병술,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송정훈, 오평근, 이미숙, 황만길 의원



위원장 송 상 준



부위원장 허 승 복

특별위원회 활동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시민의 편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 점검 불합리한 행정 체계 개선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월 12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소순명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순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이 중복되면서 예산낭비가 많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확대와 탄소기술원의 활성화 및 전주국제영화제의 시민참여기회 확대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외에도 전주시 출연금 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

의 필요성이 지적됐으며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전시컨벤션센터의 차질 없는 시행 요구가 뒤따랐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예산집행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주요시책들에 대한 추진결과 등을 점검했다. 특히, 전주시의 기금재원이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에 투입되거나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또

이처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추진돼온 사업에서부터 신규 사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뤄졌으며 일부의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감사준비에 나서는 등 알찬 사무감사를 이끌어 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명단〉

소순명, 김순정, 고미희, 박형배, 양영환, 오정화, 이경신,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병하, 이완구, 장태영, 최찬욱 의원



위원장 소 순 명



부위원장 김 순 정

젊음이 넘쳐난다... 쇼핑 천국, 데이트 명소 '전주특화거리'

걷고싶은 거리, 젊음의 거리, 영화의 거리, 웨딩의 거리 등



전주 한옥마을과 함께 완산구 고사동 일대의 '걷고 싶은 거리' '젊음의 거리' '청년의 거리' '영화의 거리' 등의 특화된 거리들은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한마디로 '젊음의 향연' 그 자체인 곳이다.

전주시가 지난 2002년 보행자 보호와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810m)는 1년 365일 젊음이 연인, 가족들로 넘쳐난다. 이곳은 전주의 명동으로 불릴 만큼 쇼핑의 천국, 데이트의 명소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전주 걷고 싶은 거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최소화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회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화의 거리에는 메가박스를 비롯 CGV, 시네마극장 등 대형 극장들이 인접해 있어 영화를 보기위해 이곳을 찾는 가족, 연인,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최근에는 영화의 거리에 있는 영화호텔 2층에 영화전문도서관이 개관되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은 필름과 DVD 등 영상자료 1만5천여점과 영화 관련 전문 서적 4천400여권, 전문잡지 2천여권 등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를 갖춰 영화학도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자료들은 영화호텔의 문화사업에 뜻을 함께하는 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전주 신도심과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쇠퇴일로에 있는 전주 고사동 일원의 구도심이 이제는 문화의 영상의 창조지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걷고싶은
거리



웨딩의
거리



영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

김 윤 철 의원

중앙, 풍남, 노송동



원도심 활성화 기금 조성 기초 마련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여 년 전부터 전주시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재개발 지구를 지정해놓음으로써 해당 주택 지구에서 제반 개발행위를 불가능하게 하여 생활 기반시설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원도심주택가는 품격의 도시라는 격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원도심 공동화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외곽 신시가지 개발에만 몰두해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외된 원도심주택가의 현실을 뼈아픈 심정으로 관찰하여 예견되는 사태에 관해서 더 늦기 전에 세심한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실용적 대안으로 지금부터라도 「원도심 활성화 기금」 조성을 위해 분주하게 노력해야 하며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자구적 마련이 어렵다면 금후 전개될 택지개발 및 신시가지개발시 나눔과 상생차원에서 수익금 일부 또는 일정액을 상대적으로 소외 될 수밖에 없는 원도심 인구 증대 방안을 위하여 의무 적립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송동 경로당에 여름나기 물품전달 의원동정

김윤철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완산구 노송동 통장협의회와 관내 20개 경로당을 찾아 폭염관련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과일 등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했다. 김 의



원과 통장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관내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하여 수박 등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경로당 이용에 불편한 점 등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겨운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장마와 폭염으로 기력을 잃기 쉬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위로하기 위해 여름나기 물품을 전하게 되었다며 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정질문

100년 미래의 전주, 현실적인 생태도시 전주 조성

허승복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도시관리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전주시가 민선6기에 전통문화를 넘어서 생태도시 전주를 표방하고 나섰으나, 지난 1년간 과연 전주의 생태도시 추진정책이 전주의 현실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여전히 도시개발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난 7월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이유로 여의·천마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는 만성, 혁신도시, 에코 등 도시외곽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또 다른 도시외곽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러한 개발은 연간 인구 순증가가 3천여 명이고 그중 순유입은 500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 인구의 이동만을 부추겨 결국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기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만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의 대단위 택지개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승 복 의원

중앙, 풍남, 노송동



한옥마을 강강술래 축제 참여 의원동정



허승복 의원은 추석 다음날인 9월 28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개최된 강강술래 축제에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관이 주도한 축제가 아니라 주민과 상인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으고, 기부를 하고, 재능을 나누어 만들어 낸 순수 민간형 주민주도 축제로 한옥마을에서 개최되었다. 슈퍼문 보름달이 뜬다는 올 추석에 한복을 입고, 주민들과 상인들이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을 돌아다니며 스탬프를 찍고, 한바탕 어우러져 퍼레이드를 벌이고, 전주천 둔치에서 놀아본 강강술래, 한옥마을의 진심어린 콘텐츠가 살아나는 즐거운 한마당이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허 의원은 이번 강강술래 축제가 전주 축제의 변화의 싹이며, 시민주도의 축제의 현장에서 미래 전주 한옥마을과 관광산업의 콘텐츠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백영규 의원

완산, 중화산1·2동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주민공청회 의원동정



백영규 의원은 지난 8월 19일 완산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완산노인 복지관은 그동안 제대로 된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했던 완산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억원과 시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이 투입되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백 의원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기반시설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완산노인복지관이 완공되면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등이 추진돼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더불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원동정

서원노인복지관 배식 봉사활동과 용머리육교 철거 주민공청회 의견수렴

백영규 의원은 지난 9월 2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화산동에 위치한 서원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을 펼쳤다. 백 의원은 이날 배식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백 의원은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풍요로움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외로운 날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주 배식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을 찾아뵙겠다고 강조했다.

또 백 의원은 같은 날 지난 1990년께 설치됐지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완산동 용머리육교 철거 여부와 관련한 주민공청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공청회에서 기존 설문문항 일부 수정해 10월1일부터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머리육교 철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기 동 의원

완산, 중화산1·2동

전라감영 복원!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자 5분자유발언

이기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 통해 전라감영 복원에 시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천년 전주라는 가치와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접목한 도심 속 한옥마을은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지만 한옥마을의 상업화는 이미 극에 달해있고, 거점형 관광 동선도 한정된 탓에 많은 사람은 향후 5년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전주에도 문화적 상징공간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며 그 해답은 전라감영 복원 사업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라감영 복원은 재창조 과정과 방식에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민소통의 문화공간 및 시민문화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복원 사업의 단계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구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디자인으로 복원된 문화시설의 영역들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천년 전주의 정신적 가치 함양과 전주시의 상징적 문화공간으로 재창조되는 좋은 기회이자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작은도서관 공식 개관 의원동정



이기동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중화산동 주민들의 정보·문화 사랑방인 중산작은도서관 개관을 축하했다. 완산구 중화산동 중산공원 내에 들어선 중산작은도서관 조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5억 원과 시비 8억 원이 투입됐으며, 작은도서관과 프로그램실(3실)을 갖춘 연면적 738㎡,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특히, 작은도서관 내부에는 밖의 공원을 감상하면서 독서 할 수 있는 데크 형식의 열람석이 설치됐으며, 친환경 자작나무 인테리어서가, 어린이와 유아들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유아용 코너, 신간 및 추천도서코너 등을 갖췄다. 이날 이 의원은 중

산작은도서관을 우리 동네 문화사랑방으로 만들어나가 중화산동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병 술 의원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방치되어 있는 지역 문화재를 재조명하고 곤지산 일대 초록바위 역사공원 조성하자 5분자유발언

박병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곤지산 일대 초록바위 역사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옥마을이 부각되면서 다른 문화재와 시설물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있다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찾는 이가 드물고 방치되어 있는 곳곳의 문화재와 시설물들의 보존·관리가 재조명되어 적절한 콘텐츠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공론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다가산에서 승암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은 재조명 되어야 마땅하며 진주시 동남부권역 거점형 관광벨트 개발을 제안하고 첫 단추로 곤지산 일대 초록바위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우선 시행을 촉구하였다. 초록바위에 얹힌 역사적 배경들을 성역화·상징화한 역사공원을 건립한다면 진라감영 및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혀 손색이 없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곤지산을 잇는 충혼이 깃든 다가공원 및 아름다운 완산칠봉과 더불어 서서학동 흑석골의 옛길인 보광재 등산로의 꽃길 조성 사업까지 이어진다면 치유와 건강을 담보하는 힐링 공간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내 어르신 점심 배식 봉사 활동 의원동정



박병술 의원은 지난 10월 지역구 내 어르신 점심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점심 배식 봉사활동은 어르신들께 영양과 사랑이 듬뿍 담긴 점심을 대접하고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정겨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어르신들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박 의원은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했다.

양영환 의원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불법도로 점용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 촉구한다

5분자유발언

양영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도로 점용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상습적으로 상품이나 광고물 등을 진열·전시하여 시민의 보행 권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도로점용 실상에 대해 전주시의 단호한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시민들이 불법 도로점용의 불편사항을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단속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주시는 지난달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용역결과를 근거로 2017년까지 WHO(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전주시가 진정한 안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길은 국제인증 같은 감투와 명예가 아닌 도심 곳곳에서 만연되고 있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권을 만들어 주는 행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평화사회복지관 점심 배식 봉사활동 의원동정



양영환 의원은 지난 3월 13일 평화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30명과 어르신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0여명을 대상으로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사랑과 영양을 듬뿍 담은 점심 배식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운 날씨 속에 외롭게 살아가고 계시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한 웃음을 드리고 점심식사를 거르시는 소외계층에 작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양영환 의원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행사였으며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름답고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평 근 의원

평화2동



5분자유발언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허가심의 신중해야 한다

오평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허가심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년 전 한솔환경 고물상이 평화동 장교리 마을 북쪽 20m 인근 4,400㎡ 부지에 입주하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비산먼지, 물과 기름의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2,000㎡ 규모의 고물상이 또다시 들어서기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 의원은 이곳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한솔환경으로 인하여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고물상이 들어서는 것은 마을을 떠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이를 온몸으로 저지하지 위해 길거리로 나왔다고 밝혔다. 물론 고물상이 필요 없는 시설은 아니며 지역 어딘가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자원 순환시설인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심의 요청시 조금만 더 신중하게 검토했다면 이와 같은 결정은 없었을 것이다. 오 의원은 전주시가 앞으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심의 안건에 대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이번 고물상과 같은 제2, 제3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행정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도 농가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의원동정

오평근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석구동 신평마을에 위치한 한 포도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오 의원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15명과 메르스 여파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농가를 위해 미처 포장하지 못한 포도를 씌우는 작업 등을 펼치며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농번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오 의원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농촌 일손 돕기 봉사에 참여해 조금이나마 어려운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면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위원회활동

이도영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이미 지난해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폐지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자금 대출이 일원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혜자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로 제한하여 일반금융회사로부터 높은 금리에 학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전주시 지역 대학생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 된 자로 개정했다. 이 의원은 본 조례를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전주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수혜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대학생이 없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주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이도영 의원

평화 2동



노인의날 기념행사 감사패 수상 의원동정

이도영 의원이 노인공경의 모범이 돼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로부터 노인 복지 증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평소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노인공경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어르신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바로 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며, 효의 실천 분위기 조성 and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더불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현덕 의원

삼천1·2·3동, 효자1·2동



삼천2동 경로 위안잔치 의원동정



김현덕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삼천동 세내공원에서 삼천2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가 주최한 경로위안잔치에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및 여러 자생단체 회원들이 참여하여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육개장과 과일, 떡 등의 음식을 대접했으며, 삼천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풍물교실 회원 15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어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풍물놀이를 선보였다. 김 의원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위안잔치를 마련해 준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동정

탈북가정과 함께하는 나눔행사

김현덕 의원은 지난 4월 24일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지회 삼천3동 분회가 주최한 관내 탈북가족을 위한 나눔행사에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관내 탈북가족 5명을 초청하여 1인당 12만원 상당의 현물(쌀, 라면, 화장지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김 의원은 탈북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며 탈북민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회 삼천3동 분회는 총 4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어려운 이웃 돕기, 자연보호 캠페인,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등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탈북민을 초청하여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한 바 있다.



소 순 명 의원

삼천1·2·3동, 효자1·2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 위원회활동



소순명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주시의회는 소순명 위원장을 비롯해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예산집행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주요사업들에 대한 추진결과 등을 점검했다. 소 의원은 시민의 편에서 예산과 복지 등 시정 모든 분야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노력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위원회활동



소순명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전주시가 추진하는 역사문화벨트사업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역사문화공원 조성 예정지를 현장답사 했다. 이날 소 의원은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역사문화공원 조성지를 전문가와 함께 답사하여 정신계승관, 민의 광장 조성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번 사업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동학농민군이 하룻밤을 숙영한 삼천(우림교 부근)을 비롯해 황학대·유연대 전투지 등 곳곳에 잠들어 있

는 주요 유적지를 답사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동학 정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 의원은 전주는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와 정신을 고스란히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또 하나의 전주의 자랑거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태영 의원

삼천1·2·3동, 효자1·2동



시정질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의 재점검 및 정여립로 조기개설 하라. 생태체험장 예산낭비 아닌가

장태영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사업과 정여립로 조기개설, 생태체험장 추진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먼저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사업과 관련, 설계에 반영된 진입도로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실제 진입도로 위치 계획과 이에 따른 차량 진출입동선, 각 시설별 처리공정 흐름을 반영한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 삼천동 3가 폐기물 밀집지역 소각자원센터 진입도로인 정여립로는 소각자원센터~혁신도시를 잇는 서남부권역 주요 교통 도로망으로 교통량의 폭발적 증가와 폐기물 시설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개설이 시급한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2단계 사업비의 조기투입을 통한 전폭 개설 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장 의원은 또 지난 민선 5기에 추진한 생태체험장과 관련, 이 사업은 용역비만 낭비하고 중단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생태체험장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교육 문화센터 운영 제안 5분자유발언

장태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반려동물 유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반려동물 등록제'는 시행 2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 전국적 통계에 의하면 의무사항임에도 등록률은 50%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를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단 한 건도 없다. 장 의원은 반려동물 유기는 한 해 8만건 이상 발생하고, 휴가철인 7~8월에는 월평균보다 25% 증가한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조건 사서 기르고 보자는 사육환경과 반려문화를 제고하고, 올바른 사육방법과 에티켓을 제공하는 '가칭반려동물 교육 문화센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을 통한 장애인, 청소년,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동물 매개치료 복지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시행해 반려견의 역할을 활용한다면 애견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 선 희 의원

서신동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은 왜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가

5분자유발언

서선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서 의원은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이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거치는 동안 본 계획을 입안하고 원안 강행 해왔던 주역이 김승수 시장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행정과 민간과의 약속이며, 두 자치단체간의 행정행위로 이를 변경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치인이란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내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이 끝나면 거침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그럴 때 내면에서 가장 큰 힘이 생기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66만 도시의 시장이 다 낡은 종합경기장을 자원도 계획도 없이 재생하겠다고 할 만큼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 서 의원은 정치인이란 감수해야 할 숙명이 있다며 모든 사람의 선호에 자신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고 그 선호를 마냥 두려워할 수도 아주 무시할 수도 없는 것 또한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 숙명은 받아들이되 선택은 단호해야 한다며 김승수 시장의 향후 행보를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의원동정

서신동 복지도우미 희망을 주는 사람들 발대식



서선희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동네복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신동 통장들을 주축으로 하는 복지도우미 「희망을 주는 사람들」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통장들이 관내 복지도우미로 나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직접 발 벗고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 서신동의 복

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여 동네복지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뒤 따뜻한 복지 공동체 서신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을 주는 사람들은 국가의 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고 등을 비관하여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 나서기 위한 단체이다.

이 완 구 의원

서신동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시급하다 5분자유발언

이완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건물 노후로 인해 물이 새고 주변 옹벽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지적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전주시주택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299단지 4만 4,322세대에 31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 주택조례의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만을 대상으로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은 건물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더 열악함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하며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은 주택 조례에 의한 대규모 공동주택 지원과는 분리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다수의 유권자를 의식해 대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고, 소수의 유권자들은 외면하는 '수의 게임'만을 고집하지 말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도시 사람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발대식 '희망을 주는 사람들' 의원동정

이완구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서신동주민센터 1층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희망을 주는 사람들' 발대식에 참석했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은 국가의 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고 등을 비판하여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 나서기 위하여 발족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 의원은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서신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심층적으로 찾아내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복지사각지대의 실질적인 해소와 서신동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질문

여의·천마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 SNS 활용으로 시민 소통 강화하라

박형배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7월 여의지구와 천마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다음 수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8.2%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기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비전과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의지구와 천마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철회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전주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소통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일방적인 시정홍보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민원과 관련해 SNS 통해 접수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앞으로 SNS를 활용한 생활민원 접수 방안과 접수된 민원의 사후 처리 결과에 대한 소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형 배 의원

효자3·4동



효천지구 삼천천 연결교량 설치를 촉구한다 5분자유발언

박형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효천지구 삼천천 연결 교량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가 효천지구 개발 사업을 계획하면서 의도했던 서부신시가지 및 완산생활권과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 동선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효천지구 삼천천 연결교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예상 사업비 1,900여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차후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만 교량을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복리와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라며, 4,600세대, 14,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게 될 전주 효천지구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기존 생활권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삼천천 연결교량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미 숙 의원

효자3·4동



합리적인 주정차단속과 서부신시가지 교통·주차문제 해결하라

시정질문

이미숙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전주시 주정차단속과 서부신시가지 교통·주차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주정차단속에 있어 단속구간, CCTV마다 단속 유예시간과 단속 시간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로 기능별 구분에 따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점을 선정하는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 상업지역 내 위치한 광장 지하주차장 건축과 관련해, 이 의원은 주차장 진입로를 반 지하로 설계한다면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2개소의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 부지에 100 여대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 주차장은 준비가 되었는지. 또 지하주차장을 조성한 후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 공영주차장 5곳에 대한 주차 빌딩화 사업 시행에 있어 전주시 예산으로 여유롭지 못한 점을 고려해볼 때 민간투자 방법과 시 자체사업 등 세부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대한방직부지 복합용도개발형 사업지구로 지정하자

시정질문

이미숙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대한방직부지를 복합용도개발형 사업지구로 지정할 것과 부지 매각시 토지지가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지역기반 시설 재원으로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대한방직이 서부신시가지 전주 공장 부지를 매각하기로 입찰공고를 한 것과 관련 전주시가 대한방직, (주)한양, 부영주택과 모종의 협상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대한방직측의 부지매각 취소시 전주시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매각시 토지지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익금을 지역기반시설인 공공용지와 실내체육관·문화관 건립, 대형공용주차장 조성 재원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대한방직 부지를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이 아닌 복합용도개발형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재차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에서 사유지라는 미명하에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개발방안과 개발이익의 적정화를 도모하면서 사익과 공익간의 조화를 이끌어 전주시 발전에 한 획을 긋는 도시정책의 성공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 법률상담 멘토링부터 시작해야

5분자유발언

남관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에게 법률상담 멘토링서비스를 시작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남 의원은 빈곤과 복지의 사이에서 소위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관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 아픔을 함께 풀어야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민선6기 김승수 시장의 공약 중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 사업에서 일정부분 희망을 찾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SOS센터 개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주요 구성방식을 살펴보면 저소득 법률지원 멘토링 서비스 인프라가 매우 미약해 보이며 이 정책이 사람의 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민선6기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복지 법률지원 서비스의 인프라 확보 노력은 반드시 우선 추진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관련 법률상담을 통해 수급자미신청, 탈락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관련한 멘토링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 교육의 단계부터 지역 내 복지관련 협력기관과 연계해 줄 수 있는 권리구제의 다양한 접근 체계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고민과 보완을 당부했다.

남 관 우 의원

진북, 금암1·2동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한마당

의원동정

남관우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진북문화마당에서 열린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과 자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국제로타리 3670 지구 전주제일로타리 클럽에서 주관했으며 지역 주민과 전주동백로타리클럽 회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진북동 5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자장면을 대접하고 신명나는 공연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남 의원은 지난 8월 발매한 본인 앨범의 타이틀곡인 그리운 어머니를 불러 어르신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남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실천과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역 사회의 따뜻함을 전해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찬 욱 의원

진북, 금암1·2동



지방법원 일일명예민원실장 위촉

의원동정

최찬욱 의원이 전주시방법원 일일 명예 민원실장으로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0일 전주시방법원 일일 명예 민원실장으로 위촉받고 법원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을 안내하고 응대하는 등 민원행정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민원인들의 고충과 민원해소에 관심을 기울였다. 최 의원은 민원행정 업무 체험에 이어 법원 관계자들을 만나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일일 명예 민원실장으로 나선 최 의원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법원 민원사무를 체험하고, 사법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법무부법사랑위원 전주시 지역연합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올해로 25년째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회 연탄배달 전라북도 체육회 부회장 선임

의원동정

최찬욱 의원(전주시민의 장 수상자회 회장)은 지난 2월 3일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회 회원 50여명과 전주시 노송동 지역 일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사랑의 연탄 4천장을 배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최 의원은 앞치마를 두르고 연탄을 배달하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신 붉은 구슬땀을 흘렸다. 사랑의 연탄 배달에 참여한 최 의원('93, 전주시민의 장 체육장 수상)은 '저희가 나르고 있는 연탄 한 장 한 장이 어려운 이웃들의 추위를 막아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전혀 힘들지 않고 저절로 힘이 솟는다고 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월 전북 도내 체육인을 대표하는 전라북도 체육회 부회장에 선임됐으며 지난 10월 강원도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전에서 전북도가 체전 순위 10위로 도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분자유발언

전주시 주민 개방형 학교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언

강동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역에 위치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고 무료 도서 대출, 자녀 독서지도, 독서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이 행복한 좋은 교육 환경을 표방하는 주민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작은 도서관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주로 아파트, 주민센터, 기업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민 등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삶의 문화를 선도하고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학교 내 도서관을 개방하는 주민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학교 도서관이 지역주민, 학생 등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양성하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장소로 활용된다면 전주시가 추구하는 사회적 공동체 가치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동 화 의원

인후1·2동



사랑의 연탄 릴레이

의원동정

강동화 의원은 지난 10월 8일 동절기를 앞두고 민관이 함께 하는 연탄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쳐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연탄 나눔행사는 팔복동에 위치한 탄소섬유 제품 개발 업체인 한국CTS(주)에서 연탄 2,000장을 지원하여 겨울을 앞둔 저소득층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동화 의원과 한국CTS(주) 임직원, 구청 생활복지과 직원 5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인덕마을 회관과 저소득층 5가구에 연탄을 지원해주었다. 강동화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춥고 외로운 겨울이 아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연 의원

인후1·2동



한옥마을, 새로운 관광지와 연계 시키자 지역사업체, 경제에 도움돼야

시정질문

이명연 의원은 한옥마을 관광활성화 방안과 종교성지 주변 여건 개선계획, 전주시 소재 지역업체의 활성화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먼저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활성화시킨 한옥마을 관광객을 통해서 얻고 있는 전주시의 이득은 무엇이며, 세수익은 얼마나 되고 향후 한옥마을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물었다. 또 전주 인근에 천년사찰이나 백년 이 넘는 교회, 원불교 성지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보존 또는 주변 여건 개선을 통하여 관광 활성화에 커다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상황 파악과 향후 개선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가 낙찰을 받아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전주시에 납부하게 되고 그 세금이 다시 전주시민을 위한 복지로 돌아 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면 전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복지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며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안들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물었다.



차별받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바꿔라 5분자유발언

이명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요즘 전주에서 취업을 하려면 너무 어렵고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아 청년들은 전주를 떠나 타지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전주시 청년들은 공무원 응시자격에서 차별 받고 있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에 있어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라고 되어 있는 반면 우리 전주시는 「전라북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주 청년들은 전주를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에 응시할 수 없지만 13개 타시·군의 청년들은 자체 시·군 또는 전주시까지 응시할 수 있다. 가장 공평해야 할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 같은 전북권의 시군 중 전주시 청년들만 유독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농촌일손돕기

의원동정



김명지 의원은 지난 6월 23일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들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천동 최민호(64)씨 농가를 찾아 오디따기 등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농촌 일손돕기에 나선 의원들은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오디재배 농가에 어려

움을 덜어주고, 적기에 오디를 수확하여 빠른 판매로 재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일손돕기에 나선 김명지 의원은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데 최근 메르스 사태까지 발생해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며 앞으로 농촌 일손돕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지 의원

인후3, 우아1·2동
(전주시의회 부의장)



동민 화합의 날

의원동정

김명지 의원은 지난 5월 9일 우아2동 중상보공원에서 열린 제1회 동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 동안 동민의 날이 없어 아쉬워하는 동민들의 여망을 수렴해 주민자치위원회 주축으로 올해 처음 동민의 날을 제정, 이를 기념하기 위해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지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주민 1천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과 동민체육대회,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행사에 참석한 김 의원은 동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마을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 앞으로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정 화 의원

인후3, 우아1·2 동



전주시 동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촉구한다 5분자유발언

오정화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전주시 동부권의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학교와 학원 외의 여가활동을 통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과 전주시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라며 생활권 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6개의 청소년 시설을 보면 완산구의 태평동, 중화산동, 효자동, 덕진구의 송천동, 덕진동, 팔복동 각각 3곳에 위치·운영하고 있다. 오 의원은 전주시 전역에서 봤을 때 동부·서남·북부권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위치상 한계가 있으며 전주시 청소년의 수는 147,514명(2014년기준)으로 전체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의 수용인원은 1,55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동부권의 아동·청소년센터는 전주시 전체 청소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며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라는 말처럼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은 곧 전주시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중호반문화예술제 의원동정

오정화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아중호수와 아중중학교에서 개최된 아중호반문화예술제에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아중호반문화예술제는 올해 처음 개최된 시민주도형 축제로 아중호수와 기린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관광컨텐츠를 개발해 전주시의 새로운 생태관광명소로 도약시키고자 진행된 야심찬 프로젝트다. 이날 행사에는 오 의원을 비롯하여 전주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과 로컬푸드 직판장이 열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오 의원은 혁신도시와 신시가지 등 신도심권 개발에 밀려 구도심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문화예술제를 통해 전주 동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주도형 축제로 거듭나 전주의 대표적인 시민 축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병 도 의원

인후3, 우아1·2동

범죄 예방 위한 도시 디자인 정책 만들자 5분자유발언

이병도 의원은 범죄예방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제안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의원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사례를 들며 범죄 발생과 불안감이 매우 높았던 염리동 지역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통해 절도, 성폭행 등 범죄 발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시도 범죄예방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먼저, 정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전주시 특성에 맞는 안전한 시범마을 조성 및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필요 5분자유발언

이병도 의원은 해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학교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전주시의 경우 약 3,480여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올해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들을 준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도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복지에 있어 균등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예산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김 남 규 의원

송천1동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5분자유발언

김남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분석, 수요자와 시민만족도, 경영효율성,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공성과 전문성 그리고 경영효율성을 원점에서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도입은 2000년부터 민간전문단체의 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나 도입 초기 취지에 비해 섹바렌 측면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탁의 공모율과 경쟁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기존 업체가 재위탁 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위탁의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위탁시설이 법규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분과 양형기준을 명확히 하여 완판본 문화관처럼 여러 위반 사항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나 운영규정의 미흡으로 이러한 처분 결과가 나왔다면 향후 민간위탁 전문성, 공공성,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처분과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나쁜 선례의 재발 방지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송저수지 배스 퇴치 운동

의원동정

김남규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오송제 배스 퇴치 운동에 참여했다. 송천동에 위치한 오송제는 자연의 생태가 살아 숨 쉬는 도심 속 생태공간으로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각종 곤충들과 산소공장으로 불리는 오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황새, 기러기 등 철새들이 찾는 전주의 대표적인 생태호수이다. 그러나 이곳에 어업자원 활용 목적으로 도입된 배스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날 배스 퇴치운동에 함께한 김 의원은 배스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해 토종어류와 수서곤충 개체 수가 급감하여 생태계 종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배스 퇴치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심 속 생태의 보고(寶庫)이자 생태관광자원인 오송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덕진보건소, 우아동 변경 아쉽지만 의료복지 중심대야

신상발언

박혜숙 의원은 덕진보건소가 시민단체 토론회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송천동으로 결정된 것이 전주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우아동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최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날로 증가된 보건행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그간 소외된 덕진구민의 보건복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심사숙고 끝에 덕진보건소 위치 선정을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전주시의회는 시민과 전주시를 위해 그 어느 기관보다 원칙과 상식을 철저히 지켜내야 하는 곳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시책의 나침반 역할을 해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곳임에도 이번 덕진보건소 위치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부분은 냉철히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의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의사결정과정에다 더 숙고하여 올곧은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앞으로 건립될 덕진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덕진구민 모두에게 공정한 보건 편의와 의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박 혜 숙 의원

송천1동



전주시 시니어클럽 완산구에만 3곳, 덕진구에는 0, 덕진구 2곳 설치 마땅

5분자유발언

박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으로 2004년부터 다양한 사업 성과를 이어오고 있는 전주시 시니어클럽의 불균형적 지역편중에 대해 지적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전담기관으로 현재 전주시에는 3개의 시니어클럽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니어클럽 세 곳이 모두 완산구에 위치해 있고 관내 지역 편중 논란과 함께 형평성을 맞추자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 편중에 관련하여 인구대비 방식으로 살펴 본 결과, 현재 전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만 5980명으로 완산구 노인 인구는 4만 2238명이었고 약 55%, 덕진구 노인 인구수는 3만 3742명으로 약 44%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며 완산구 노인 인구가 약 11% 정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분포 수치를 고려해서 덕진구에 최소 2개소 정도는 추가 개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동권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및 일자리 제공 서비스의 수요 욕구와 관련한 기회 자체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병 하 의원

덕진, 호성동



5분자유발언

지역 순환형 문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절실하다

이병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순환형 문화관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류형 관광 확산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에 모여드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전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로 모여든 관광객을 전북의 다른 시군으로 유도하여 체류형 관광을 확산시키고, 반대로 전북지역 곳곳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주를 다시 방문하도록 하는 상생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북의 여러 시군이 대전·충남 경제권역, 광주·전남 경제권역과 직접 연결되어 많은 인력과 자본이 대전과 광주권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전주시는 전북지역의 시·군과 함께 문화 관광분야에서 상생 협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업화에서 뒤쳐진 전주와 전북지역은 앞으로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와 더불어 문화 관광산업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어느 한 지역에 관광객이 치우치는 것이 아닌 전북지역 곳곳에 관광객이 체류하는 지역 순환형, 상생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의원동정

전주동물원 북쪽에 출입구·주차장 설치로 교통난 해소하자

이병하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주동물원~호성동 소통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현재 동물원의 남쪽인 정문과 주차장은 평소 호성동 출입 차량과 동물원 출입 차량이 교차하면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주말은 더욱 정체가 심해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이 의원은 호성동으로 이어지는 전주동물원 북쪽에 출입구와 주차장을 설치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동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 생태동물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마무리 되는 11월까지 북문 출입구와 주차장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전주동물원을 인간과 동물이 공존·교감할 수 있는 생태동물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다.



황 만 길 의원

덕진, 호성동

덕진동 사랑나눔 텃밭 수확행사 의원동정



황만길 의원은 지난 7월 27일 덕진동 통장 회원 및 주민센터 직원 30여명과 주민센터 뒤편 약 500㎡ 부지에 조성한 사랑나눔 텃밭에서 가꾼 각종 친환경 채소 수확행사에 참여했다. 덕진동 사랑나눔 텃밭은 주민들이 직접 가

꾼 각종 친환경 채소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따뜻한 동네복지 실현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주민을 대표하는 5개 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참여해 조성해왔다. 이날 수확한 상추, 고추, 오이 등 채소들은 생활관리사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밥상에 신선하게 제공할 계획이며 잔여 농산물의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모두 동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수확 행사에 함께한 황만길 의원은 주민이 주체가 돼 땀 흘려 경작한 농작물로 이웃을 보살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랑나눔 텃밭 수확행사가 진정한 동네복지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석맞이 대청소 및 환경보호 캠페인 의원동정

황만길 의원은 지난 9월 24일 덕진동 통장협의회, 새마을 회원 등과 추석맞이 대청소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와 환경보호 캠페인에는 자생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대청소와 환경보호 캠페인에 나섰다. 덕진동은 전주의 중심지로 휴일과 명절 연휴 관광객과 귀성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 환경정비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날 유동 인구가 많은 덕진광장, 대학로,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황만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깨끗한 동네, 전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옥 의원

팔북, 조촌, 동산, 송천2동



다울마당, 설립보다 책임성 확보 필요 추천대교~신평리 개설도로 차질없어야

시정질문

김진옥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다울마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추천대교~신평리 도로 개설 지연 관련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주시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24개의 다울마당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나 위원회 등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다울마당 설립에만 중점을 두어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조례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와 중복성, 다울마당 간 위원 중복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울마당 설립시 기존 조례나 위원회 활용 등 사전 검토 의무화, 다울마당 위원 구성 기준과 중복 참여 배제를 위한 인적 풀 확대 필요성, 다울마당의 민주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행정조직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방향과 사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추천대교~신평리 도로개설 지연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 확보 방안과 2017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갑자기 기존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 변경계획을 철회하고 주민의 의견과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전주시에 답변을 요구했다.

효도 삼계탕 봉사활동

의원동정

김진옥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송천2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관내 어르신 300명을 모시고 효도 삼계탕 대접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을 점심식사로 제공했다. 또,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묻고 불편사항 등을 듣는 정겨운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김진옥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탕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운동과 효 실천 봉사를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송 상 준 의원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팔복동 신복공원, 주민 힐링공간으로 바뀌 쓰레기 투기지역 나무심어 공원조성

의원동정



송상준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신복공원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팔복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신현택 덕진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신복공원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신복공원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모과 등 16종 1,268 그루의 나무와 운동



기구 6점, 편의시설(등의자 7개) 등이 설치됐으며 앞으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재탄생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그동안 신복공원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주차로 골치가 아팠던 곳이었으나 이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공원으로 탈바꿈 돼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활동 등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 U-20 월드컵 유치 기념 친선경기

의원동정

송상준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전주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2017 U-20월드컵에 전주가 당당히 개최도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구경기에 함께했다. 이번 축구 경기는 전주시의회 의원과 덕진구청 공무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 U-20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기 위해 그동안 동분서주하며 달려온 공무원들과 월드컵 유치 성공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구대회에 참가한 송상준 의원은 전주시는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대회 운영으로 전주를 또 한 번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정 훈 의원

팔북, 조촌, 동산, 송천2동



항공대 이전, 주민의견 무시한 불통행정 시정질문

송정훈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전주 항공대대 이전과 에코시티 개발 협의 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 1월 국방부와 항공대 이전협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단이전이 완료되었는데 이는 항공대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협약서상 맞는 것인지 물었다. 또한 에코시티와 주고받은 공문서 몇 건에 의한 논의가 협약서에 준하는 것인지를 묻고 만약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협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또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 유치 시행 협약서대로 항공대 이전을 제외시켰을 경우 에코시티의 적자는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만약 그 책임을 전주시가 떠안아야만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항공대 이전이라는 중요 사업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어떠한 공론화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도도동강행 이전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지부진 끌어왔던 실수와 잘못들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 명쾌히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촌 · 동산 · 팔복권역 노인복지관 신설 시급하다 5분자유발언

송정훈 의원은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건립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의학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일부 지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촌 · 동산 · 팔복동의 노령인구는 전주시 평균 보다 높다. 송 의원은 전주시에 설치된 노인관련 시설(629개)은 완산구에 365개 시설이 있는 반면, 덕진구는 이보다 현저히 적은 264개로 도심지역에 비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빨리 진행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조촌 · 동산 · 팔복동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덕진구 북서부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촌 · 동산 · 팔복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5분자유발언

“비빔밥 축제 주민 곁으로 다가가도록 하라”

김순정 의원은 현재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는 살기 좋은 문화관광도시가 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고 전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며 전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축제와 국제적인 행사를 꼼꼼히 살펴 내실 있는 알찬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비빔밥 축제는 비빔밥을 비벼 관광객들과 점심대용으로 나눠먹고 끝낸 것이 전부였다. 김 의원은 전주비빔밥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남부시장, 신중양시장, 모래내시장 등 3개의 시장과 연계하여 비빔밥 축제를 함께할 수 있는 기획을 제안하고 두번째, 축제 조직위원회가 단발성 조직이 아닌 축제의 기획, 실행,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전주시 3대 축제 조직위원회의 통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볼거리, 먹거리, 이야기가 있는 체험과 나눔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고 가보고 싶은 축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순 정 의원

비례대표

경로당 어르신 찰밥 대접 봉사활동 의원동정

김순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해바라기봉사단 회원과 일심자모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찰밥, 과일 등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나눔행사를 가졌다. 중앙동 해바라기봉사단은 매주 회원 2~4명씩이 노송천 노인복지회관(인골노인복지회관 노송천분관)에서 중식 배식 봉사를 하고 있으며, 매월 밑반찬을 만들어 독거어르신, 중증장애인, 부자세대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밑반찬 나눔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나눔 행사에 함께한 김순정 의원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미희 의원

비례대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위해 전주·완주 T/F 팀 구성하자

5분자유발언

고미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의 혁신도시 상생협력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혁신도시 행정구역이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각각의 지역에 동일한 시설을 중복 설치하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근원적으로 전주와 완주는 한 형제이자 중요한 이웃이라며 이 대명제를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혁신도시라고 말했다. 앞으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은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나갈 것이다. 고 의원은 앞으로 주민의 뜻을 모아 전주와 완주가 공동으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면 구색만 갖춘 웅색한 시설이 아닌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규모 있고, 훌륭한 명품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시와 완주군의 혁신도시 상생협력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층건물에 대응하는 도시 관리를 촉구한다

5분자유발언

고미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고층건물에 대응하는 도시 관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주 지역에 초고층 건축물이 무차별적으로 허용되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무너져 시민들의 조망권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까지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은 42층 건물을 대상으로 계절별 그림자 길이를 시뮬레이션 측정 의뢰한 결과, 시공 중인 42층 주상복합 건물은 높이가 133m로 여름철 29m, 겨울철 224m의 그림자를 만들게 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거대한 높이의 건물 군으로 된 42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인근 삼천을 넘어서까지 그늘을 만들고 1개동의 건물이 아닌 7개동의 고층 건물군은 주변 일대를 장시간 응달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당 건설사는 주변에 미치게 될 피해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전주시의 태도 역시 남독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앞으로 전주시는 건축심의시 주변의 피해를 초래하는 건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강화해야 하며, 건설사 역시 주변에 미치게 될 피해를 인정하고 최소화 하도록 주변의 도로환경을 보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정질문

부당하게 지급한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즉각 환수하라

서난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전주 시내버스 적자보조금이 부당지급 됐으며 전주시민 336명이 전북도에 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자 시내버스 5개 회사는 5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전주시에 61억 5천만원을 신청했다. 7월에 재정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 돼 2012년 용역결과 적자액 42억원이 산출됐으나 11월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적자 보조 대상액이 30억원 추가된 72억원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당시 심의 안건이 2012년도 적자보조금액을 2013년도에 심의·의결한 것인지, 아니면 2013년도의 적자보조금액을 심의·의결하겠다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버스회사의 손실분에 직장폐쇄에 따른 지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용역결과보다 30억원이 증가한 명확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따져 물은 뒤 만약 전북도의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 즉각 환수할 계획이 없다면 해당 법령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서 난 이 의원

비례대표



출산·양육 사각지대 여성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 필요하다 5분자유발언



서난이 의원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과 양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대다수의 여성장애인은 제왕절개 분만을 해야 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받고 있지만 전주시는 매년 장애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산후도우미 지원을 1~2급 4주, 3~6급 2주간 지원할 뿐 현실적인 지원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출산지원금과 산후도우미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출산과 관련 병원, 산후조리원 등과 업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전주시에 있던 한 개의 미혼모 시설이 출산한 미혼모만 입소할 수 있고 임신한 미혼모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며 미혼모 시설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임시방편으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미혼모 대상 2년간 8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2년 내 포화상태가 될 것이며, 결국 임신한 미혼모는 타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 신 의원

비례대표



서남권 복합 아트센터 건립을 촉구한다 5분자유발언

이경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남권 복합 아트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주지역에 위치한 문화, 예술, 영상과 관련한 기본 인프라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도심에는 국립무형유산원 등을 포함해 7곳, 북부권에는 한국 소리문화의전당을 비롯해 6곳이 있는데 반해 삼천, 효자, 서신동 등 이른바 서남권에는 전주 국립박물관과 전주 역사박물관 단 2곳에 그쳐 문화, 예술, 영상 등 거점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인구는 전주시 66만명의 33%인 21만 4천명이 거주하고 있고 혁신도시와 호천지구까지 조성되면 서남권은 약 40만명이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문화, 예술, 영상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물론 아직까지 계획조차 없다. 이 의원은 서남권 복합 문화 아트센터가 건립 된다면 전통문화 중심도시인 전주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서남권 문화예술, 영상 복합 아트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2호남제일문과 한옥형 스카이라운지 건립 촉구한다 5분자유발언

이경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의 호남제일문과 한옥형 스카이라운지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주의 상징인 호남제일문은 전라감영의 본영지인 전주를 상징하고 200만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민선 6기를 맞아 호남제일문과 전주나들목, 동전주나들목을 정비하고 전주방면 대형 관문인 '제2의 호남제일문' 설치를 제안했다. 과거 전주의 중심이 구도심과 덕진 지역이라면 미래는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로 서전주 지역이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육교형태의 관문을 설치하여 천감사와 황방산(영화촬영소 부근) 양 지역의 맥을 잇고, 완주 혁신도시 인근에도 대형 관문을 설치한다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서해안 시대를 맞아 천년고도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제2의 관문이자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의원은 풍부한 전통생활 문화형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고장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한옥형 스카이라운지' 설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고/문

자랑스런 34명의 일꾼

조지훈 전 전주시의회 의장을 목요일 저녁마다 전북대 강의실에서 만난다. 서로 열공(?)하는 학생 신분으로서다. 시의회를 떠난 이후의 그의 행보는 일단 논외로 하고, 조 전 의장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바로 이마트 전주점 앞 천막농성 장면이다. 그는 지난 2010년 12월 23일 대형마트의 하루 영업시간 2시간 단축과 월 3일의 휴무를 요구하며 전주시 서신동 이마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1년 4월 4일까지 무려 103일간 농성을 벌였다. 그의 대형마트 앞 천막농성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야당은 이후 2013년 1월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지금 전국의 대형마트들은 매월 2회 휴무한다. 조 전 의장의 대형마트 앞 천막농성과 그 성과는 지역 정치사에 의미 있는 역사로 기록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2015년 11월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전국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국민 절반 이상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 또한 훗날 우리 역사에서 그 공과를 준엄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모든 사물에는 그것이 존재해온 연혁, 즉 역사가 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전주시의회에도 나름의 역사가 있다. 앞서 언급한 조지훈 전 의장처럼 역대 전주시의회에는 나름대로 훌륭한 의정 성과를 남긴 의원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지금도 전주시의회에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혼자 발품을 팔아가며 전국 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찾아다니는 집요한 현장 의정활동으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절감시킨 의원이 있는가 하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시민들의 집값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는 전주시내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온 의원도 있다. 어떤 일든 열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시기와 질투도 따른다. 그 일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오해와 음해도 따를 수 있다. 오해였는지 음해였는지, 올바른 비판이었는지 지금 알 수 없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훗날 모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역사로 기록된다. 제10대 전주시의회의 역사는 34명의 의원들이 함께 써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0대 전주시의회의 주인공인 34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7월 7일 엄숙한 선서와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34명의 의원 모두는 그날 선서와 함께 10대 전주시의원으로서의 남다른 각오를 각자의 가슴에 새겼을 것이다.

미래는 과거의 교훈 속에 있고,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심성(省心)편에는 ‘욕지미래 선찰이연(欲知未來 先察已然)’이라는 말이 나온다. 앞으로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10대 전주시의회 임기의 1/3이 지나고 있는 지금 34명의 의원들은 개원 선서 때 가슴에 새긴 각자의 다짐을 지금 얼마나 실현해 나가고 있을까... 만족스런 의원도, 불만족스런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온 임기 1/3보다 훨씬 긴 2/3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다. 지나온 시간들을 잘 되짚어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훌륭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조지훈 전 의장의 이름 뒤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듯 제10대 전주시의회 의원 34명 개개인의 이름 뒤에도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훌륭한 의정활동이 시의회 역사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전북일보 사회부장)
강인석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저도 시의원이 되고 싶어요!”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대상,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기회 제공



전주시의회는 미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초등학생들에게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부터 전주시 관내 초등학생(4학년~6학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의회 체험교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홍보 동영상 관람 및 설명, 3분 자유발언, 의회청사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를 체험하게 된다. 체험교실은 갈수록 교사와 참여 학생들로 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 우수 사례로 타 지역 지방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016년 지방의회 체험교실은 각 학교별(1회 30~40명)로 매년 학기 초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230-3731

지방의회 체험교실 체험수기



전주전일초등학교 6학년
유 나 영

“의회 방문 경험 오래 갈 듯” 시의원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동네 발전 그려봐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님들이 실제 회의 하는 곳에 앉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시의원이 된 느낌도 들고 나중에 시의원이 되어서 회의에 참여한다면 어떨까 상상도 하였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오셔서 인사도 하셨습니다. 선거기간에 벽보나 홍보책자로 보던 분들을 직접 뵈니까 마치 연예인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질문을 하고 시의원님들이 대답 해주셨습니다. 발표 전에는 쑥스러웠지만 언제 다시 시의회에 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을 하니 시의원님들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저와 친구들이 나와서 3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3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이었습니다. 미리 글을 쓰면서 내가 시의원이라면 우리 동네의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생각했었기 때문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생각은 많지만 요약해서 발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어려움이 많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회의 방문이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회 교과서에서 배우던 내용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 들어가니 마음이 떨려 “학교에서 배운 풀뿌리 민주주의 실감”

우리 생활과 시의회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를 오면서 건너는 신호등, 학교에서 먹는 점심, 친척집에 갈 때 타는 버스 등 우리 전주시민의 편안함을 위해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일하시는 곳이 시의회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본 것은 저에게 무척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6학년 친구들과 함께 시의원님을 직접 만난 것이 인상에 남습니다. 시의회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생각보다 회의장은 아주 멋지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마이크와 어두운 색의 책상 그리고 위엄 있어 보이는 의자, 그리고 그 앞의 넓은 화면과 의장석이 기억납니다. 사회 시간에 국민의 권리로 참정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았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선택에 따라 시의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저와 같은 학생들도 시와 관련된 일들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를 관람할 기회를 주신 시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전일초등학교 6학년
은 민 수

젊음, 전통을 만나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32개 점포... 청년들의 공간, 삶이 숨 쉰다

여행하기 딱 좋은 요즘이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로는 먼저 볼거리가 많고, 그 다음이 먹을거리가 많은 곳이 주를 이룬다. 그만큼 여행의 참맛은 먹을거리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일까 전주 한옥 마을은 1년 365일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전주의 다양한 먹을거리 매료되어 전주 한옥 마을을 다시 찾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주 남부시장 2층에 조성된 청년몰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은 지난 2011년도부터 사회적 기업 ‘이음’과 함께 남부시장 내 빈 공간을 재정비하여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진성시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는 공간이다. 한옥마을에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장점과 함께 100년도 더 된 역사적인 남부시장을 함께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갈수록 찾는 이들이 다양화되고 또 많아지고 있다.

청년몰은 처음부터 관광 목적으로 조성된 곳도,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도 아니다. 그렇다고 돈을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더더욱 아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어설픈 가게의 집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곳은 청년들이 사랑하는 공간이자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다. 처음 12개의 상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32개의 청년점포가 운영 중이다.





MAP

P
주차장

‘낯술환영’ ‘구라파식당’ ‘오메달다’ 제각각 개성이 넘치고 디자인, 패션, 식품 등 눈이 즐겁다.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를 나뉘대로 즐길 수가 있다. <순자씨 밥집>의 보리밥과 낯술환영이라는 문구가 이채로운 <청춘식당>의 떡볶이와 튀김, <구라파식당>의 유럽음식, <타코>의 타코, <오메 달다>와 <사랑한스푼>의 디저트, <차가운 새벽>의 칵테일 등이 입을 즐겁게 해준다.

청년몰에는 눈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디자인 상품, 패션상품, 디자인 소품들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소소한 무역상>에서는 외국에서 직접 들여온 상품과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엽서를 판매하고, 만지면 사야한다는 문구로 유명해진 <미스터리상회>의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상품들을 판매한다. 또 <두런캔들>의 향기로운 소이캔들, <연희공방>의 정감가는 소품들까지 다양하다.

이밖에도 전주 유일의 보드게임방 <같이놀다 가게>와 유기농 애견 간식을 파는 <개인주인>, 발 마사지와 수기치료, 홍채분석학을 이용한 건강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 <휠링산하>, 기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 진다는 <나무향기> 등이 시간가는 줄 모르게 한다.

생각도, 살아온 길도, 품은 포부도 제각각인 청년들이 오랫동안 망치되어 오다 시피한 남부시장에 모여 가능성을 만들고 각자의 생각들을 작은 가게 한 칸 한 칸에 채워가는 모습이 정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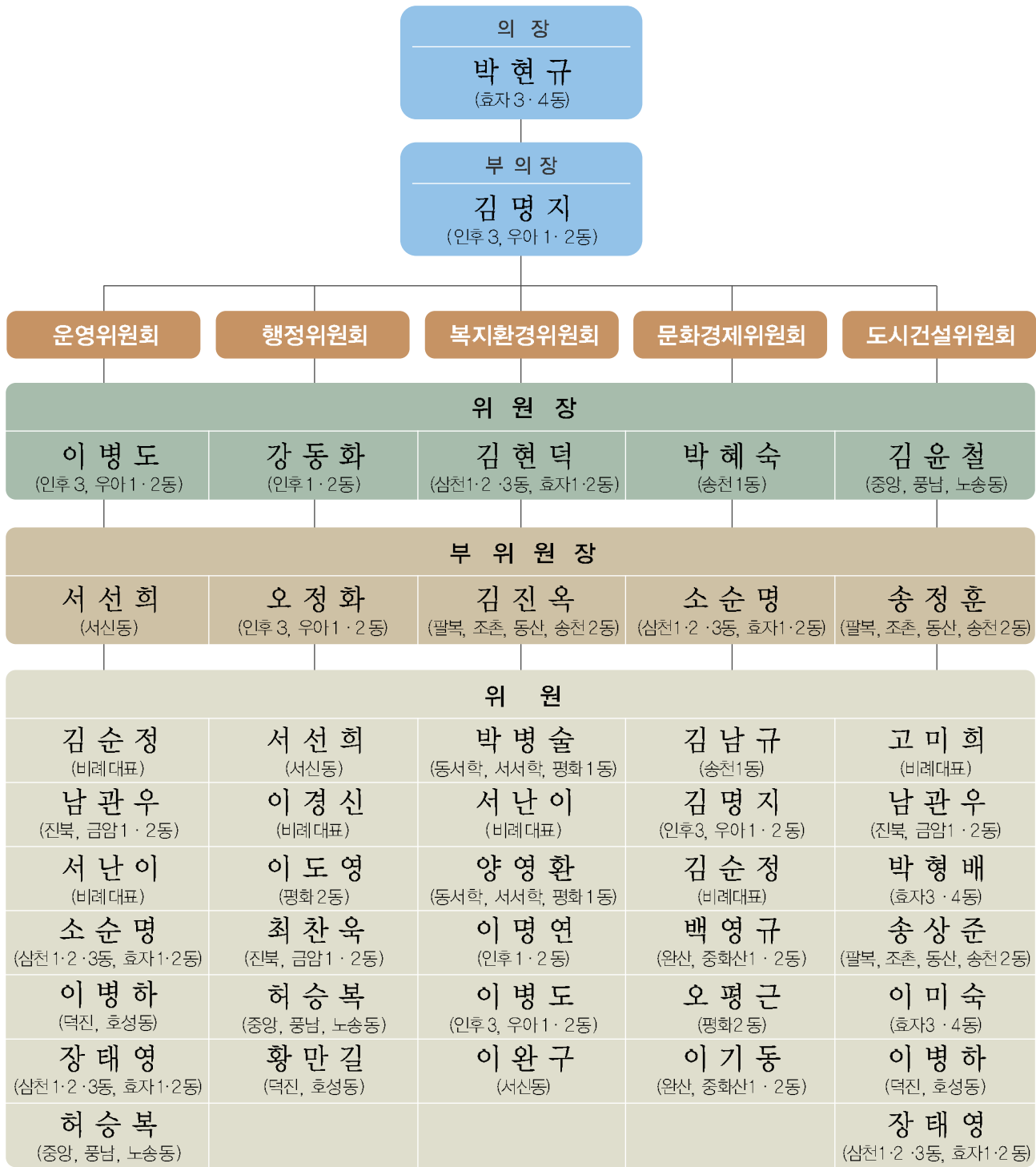
전주시의회 연혁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97조에 의거 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이 같은 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되어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25일 초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전주시의회가 구성되었다.

- 1949.07.04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법률 제32호)
- 1952.04.25 초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21명)
- 1956.08.08 제2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16명)
- 1960.12.19 제3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18명)
- 1961.05.16 5·16 쿠데타로 지방의회 해산(군사혁명위 포고 제4호)
- 1990.12.31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법률 제4301호)
- 1991.03.26 제4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45명)
- 1995.06.27 제5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45명)
- 1998.06.04 제6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40명)
- 2002.06.13 제7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5명)
- 2006.05.31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4명)
- 2010.06.02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4명)
- 2014.06.04 제10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4명)



제10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구성



제10대 전주시의회 의원 총람



의장 박현규
(효자3·4동)



부의장 김명지
(인후3, 우아1·2동)

(지역구순)



김윤철
(중앙, 풍남, 노송동)



허승복
(중앙, 풍남, 노송동)



백영규
(원산, 중화산1·2동)



이기동
(원산, 중화산1·2동)



박병술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양영환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오평근
(평화2동)



이도영
(평화2동)



김현덕
(삼천1·2·3동, 효자1·2동)



소순명
(삼천1·2·3동, 효자1·2동)



장태영
(삼천1·2·3동, 효자1·2동)



서선희
(서신동)



이 완 구
(서신동)



박 형 배
(효자3·4동)



이 미 숙
(효자3·4동)



남 관 우
(진북, 금암1·2동)



최 찬 옥
(진북, 금암1·2동)



강 동 화
(인후1·2동)



이 명 연
(인후1·2동)



오 정 화
(인후3, 우아1·2동)



이 병 도
(인후3, 우아1·2동)



김 남 규
(송천1동)



박 혜 숙
(송천1동)



이 병 하
(덕진, 호성동)



황 만 길
(덕진, 호성동)



김 진 옥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송 상 준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송 정 훈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김 순 정
(비례대표)



고 미 회
(비례대표)



서 난 이
(비례대표)



이 경 신
(비례대표)

2016년도 회기 운영 계획

연간 총 회의일수 : 10 회/103 일(정례회 2회/44일, 임시회 8회/59일)

월별	회 기	일수	주 요 안 건	비 고
1월	제326 회 임시회 1.25(월)~1.29(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취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 설날연휴 (2.7~2.9)
3월	제 327 회 임시회 3.8(화)~3.16(수)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에 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4월	제328 회 임시회 4.18(월)~4.22(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월	제329 회 임시회 5.16(월)~5.20(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국제영화(4.28~5.7) *한지축제(5.4~5.7)
6월	제330 회 임시회 6.15(수)~6.29(수)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제10대 후반기 의장 · 부의장 선거 	* 단오제 (6.9~6.10)
7월	제331 회 임시회 7.8(금)~7.11(월)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제 332 회 제1차 정례회 7.18(월)~7.29(금)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9월	제333 회 임시회 9.1(목)~9.9(금)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에 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 추석연휴 (9.14~9.16)
10월	제334 회 임시회 10.20(목)~10.26(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 비빔밥축제 (10.13~10.16)
11월 ~12월	제335 회 제2차 정례회 11.18(금)~12.19(월)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 2016년도 제2회 추경 및 2017년도 예산안 심의 	

※ 매 회기별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과정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마치며...

“행복한 전주를 위해 뛰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햇볕 쨍쨍한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기도 하고, 목청을 높여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며 언제나 시민의 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일들도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66만 전주 시민의 간곡한 뜻을 귀 담아 듣고 행동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10대 전반기 의회는 이제 막 꽃봉우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를 위하여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며, 도약하는 전주시, 행복한 전주 시민의 삶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편집위원



이 병 도



김 순 정



남 관 우



이 병 하



허 승 복



전주시의회